



감사한인교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를 16일 오후 3시 30분에 드렸다.

## 감사한인교회 31주년 “요셉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자”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를 16일(일) 오후 3시 30분에 드렸다. 예배는 김영길 담임목사의 인도로 시작해 기도 김선옥 목사(서남부지방회 회계/소나무한인교회), 성경봉독 박상훈 목사(빅토벨리감사한인교회), 설교 최영선 목사(서남부지방회회장/새하늘교회), 헌금기도 배상도 목사(서남부지방회 총무/얼마인감사한인교회), 장로 및 안수집사 임직식 인도 심상은 목사(서남부지방회회장/갈보리선교회), 권사취임식 인도 김영길

목사, 권면 김영재 목사(AG한국총회 총무), 축사 권필립 목사(서남부지방회 증경회장/복음의빛교회), 감사 허장원 장로, 기념품 증정, 인사 및 광고, 축도 김영길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한 최영선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던 요셉을 기억하는 이민자들이 되어야 한다”며 “요셉은 꿈을 잊지 않고,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연단됐다. 비록 갖가지

모함과 핍박을 받았지만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신앙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민자들도 요셉이 가졌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직자 대표로 감사한 허장원 장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열심히 섬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31주년 기념예배는 타지에서 온 많은 축하객들로 문정성시를 이뤘다.  
 토마스 맹 기자

## 말레이시아 실종 여객기 위해 기도하는 세계인들

말레이시아 실종 여객기를 위한 기도 운동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현재 전 세계의 수많은 트위터 사용자들은 최근 자신들의 개인적 트윗 뒤에 ‘PrayForMH370’라는 해시태그를 입력함으로써 많은 팔로워들이 여객기 탑승자들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개설된 트위터 페이지 @MH370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여객기 탑승자

들의 안전과 귀환에 대한 희망을 담은 글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 중에는 “인터넛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작은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종된 여객기는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준다”며 슬픔을 드러내는 글도 있으며, “계속 기도하고, 희망하고, 믿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등의 글도 눈에 띈다. 한편, 소셜네트워크 외에도 전 세계 교회와 모스크, 절 등에서는 종교를 불문하고 여객기 탑승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들이 열리

고 있다. 특히 여객기가 소속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쇼핑몰 한 가운데서도 기도 모임이 열리고 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도 다양한 종교 단체들이 참여한 기도 모임이 열렸으며, 여기에는 나직 라작 국무총리도 참석해 함께 기도했다. 한편, 지난 8일 실종된 MH370 여객기는 최근 조사를 통해 ‘고의적 통신장비 훼손’ 후 수시간 비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손현정 기자

## 테네시 연방법원

### “타주 동성결혼 인정해라” 판결 큰 논란

동성 커플의 결혼 지위에 대한 각 주의 법 적용이 달라서 중혼 등 다수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테네시 주의 연방지방법원이 타 주의 동성결혼자의 결혼을 테네시 주도 인정하라고 지난 14일 판결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테네시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불법인 상황이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결혼한 3쌍의 동성 커플은 테네시 주로 이주한 후, 자신들의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가처분 판결의 효력은 이 3쌍의 커플에게만 적용되며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 혹은 폐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가처분은 판사가 그들이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할 경우 내리는 것이기에 테네시 주 연방지방법원은 이 3쌍의 동성결혼을 허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들이 승소할 시, 테네시 주에서 2006년 제정된 동성결혼금지법도 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타주의 동성결혼 효력이 어디에까지 미치느냐 문제로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

원이 결혼보호법을 위한 처리하긴 했지만, 이 판결은 연방법에서 이성 간 결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일 뿐, 결혼법은 각 주에 여전히 귀속돼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는 동성간 결혼이 결혼으로 인정받지만, 불법인 주에서는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 거주하는 남성이 남성과 결혼한 후, 동성결혼이 불법인 주의 여성과 또 결혼하려 시도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남성이 거주하는 주에 따르면, 이 남성은 중혼을 한 것이기에 불법이지만, 여성이 거주하는 주에 따르면, 결혼 자체를 안한 상태이기에 중혼이 아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타주의 동성결혼을 모든 주에서 무조건 인정하라는 여론이 득세할 수 있으며 그리 될 경우,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주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일시에 이뤄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DC와 17개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으며 유타, 오클라호마, 버지니아 주가 항소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김영신 기자

## 산타모니카한인교회

### 차세대 위한 비전 집회 열린다

LA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산타모니카의 복음화를 위해 설립된 산타모니카한인교회가 4주년을 맞이해 오는 3월 23일 오후 2시 30분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집회를 개최한다.

UCLA, SMC 등 대학가 복음화에 주력하고 있는 이 교회는 4주년 기념예배를 대니얼 뉴만 교수를 초청해 드려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사역자와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다.

뉴만 교수는 아주사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백석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모교인 아주사대학교 교수다.



대니얼 뉴만 교수.

그는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 한국어를 유창히 구사하며 남가주 지역 한인 교회회에서 2세 사역을 하며 한인 교회와도 매우 친숙한 인물이다.

문의: 산타모니카한인교회 (1520 Pearl Street, Santa Monica, CA 90405)

www.smkc.us

김나래 기자

**나라정비** ASE 유압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증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증언어과정은**

- 미래인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증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인랜드 ANC온누리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장로·권사 임직예배드려

인랜드 ANC온누리교회(박성호 목사)가 16일 오후에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아 2명의 장로와 권사를 각각 임직했다.

박성호 담임목사의 인도로 드러진 이날 예배는 김응수 장로의 대표기도, 유진소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9장 32-43절을 본문으로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ANC 온누리교회 유진소 목사는 "오늘 본문은 취임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붙어 있어야 할 신앙의 샘플과도 같은 말씀"이라며 "죄악의 세상의 질서를 뒤집을 수 판단력과 담대함, 믿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했다. 그는 "베드로 사도처럼 한 영혼이 사망에 이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권사님들이 이런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고 전했다.

이어 유재천 장로가 경과보고와 함께 임직자를 소개한 후, 박성호 목사의 인도로 시무장로 서약 및 시무권



인랜드 ANC온누리교회가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아 2명의 장로와 권사를 각각 임직했다.

사 서약식을 갖고, 시임직위원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시무장로에 안수기도, 시무권사에 축복기도를 드렸다. 이후 박성호 목사가 시무장로와 시무권사 임직을 공포한 후 유진소 목사가 임직패를 전달했다. 특별 순서로 인랜드 지역 연합 하프 찬양단 '단비'가 '살아 계신 주찬양'을 하프로 연주했다.

축사를 전한 Sid Sybenga(CRCGLA

노회 선교디렉터) 목사는 "어린 자를 돌보며 약한 자를 위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도의 영적인 면을 책임지고, 율타리가 되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전했다. 이정현 목사(벨리서울교회 담임)는 격려사에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말씀에서 충성은 새번역에서는 신실함을 뜻한다"면서

"이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했다. 이 목사는 "교회일을 하다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일도 너무나 많다"면서 "신실함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까지도 내 생각을 접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임직자 답례 인사에서 한국민 장

로는 "성도들을 더욱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한분 한분에게 다가가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 안구 장로는 "부족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조광숙 권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섬기겠다"고 말했다. 박봉순 권사는 "주님의 힘이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저를 내려놓고 주님의 보살핌을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인사를 전한 박성호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졌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교회의 창립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제 2의 탄생이라고 할 만큼 기쁘고 의미가 있다"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다 귀하지만 앞장서서 리드하는 몸의 지체의 기능이 있듯, 직분자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직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른 후 조광숙 목사(IMF 선교회)축도로 마쳐졌다.

이안규 기자

# “85세에도 주신 말씀 기억했던 ‘갈렙’ 처럼 충성하길”

## LA연합감리교회 110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LA연합감리교회(김세환 목사)가 교회 창립 110주년을 맞아 9일 오후 3시에 감사예배와 장로 은퇴 및 장로·권사 취임 예배를 드렸다.

김세환 담임목사의 사회로 1부 감사예배, 2부 장로 은퇴 찬하, 3부 권사 및 장로 취임예식 순으로 진행됐다.

여호수아 14장6-15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이성현 목사(드림교회)는 "LA연합감리교회는 LA에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로, 오늘 은퇴하는 5명의 장로님들은 110년의 역사를 충실히 이어온 갈렙과 같은 장군"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그의 나이 40세에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서 "창립 110주년을 맞아 LA연합감리교회가 지

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소명을 기억해 다가오는 110주년의 역사를 써 나가라"고 전했다.

이어 "은퇴하는 장로님들과 새롭게 취임하시는 장로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이 산지를 달라고 외치는 갈렙과 같은 장로들이 되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2부 장로 은퇴 찬하식은 김세환 목사가 은퇴장로를 호명하고 은퇴 찬하패를 전달했다.

김광진 원로목사는 "7년 전 은퇴 후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더라"고 전하며 "은퇴 이후에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5분의 장로님과 가정이 되라"고 말했다. 그는 "성자처럼 살다간 장거리 장로처럼 은퇴한 후에도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3부 권사 및 장로 취임예식에는 직제위원장 유양진 목사(벨리중앙연합감리교회)가 각각 장로와 권사로 취임하는 대상자에게 문답을 진행하고, 유양진 목사가 취임을 선언했다. 이어 취임패 증정과 함께 안수위원들이 이한영, 임광선 장로에게 안수기도를 했다.

박진숙 권사는 "깨지기 쉽고 투박한 그릇임에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면서 "하나님께서 빛어주시고 만져주셔서 새롭게 태어난 믿음의 그릇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한영 장로는 "5분의 은퇴 장로님들이 보여준 믿음의 열정과 신실함을 본 받겠다"며 "새롭게 취임하



LA연합감리교회가 110주년 감사예배와 장로 은퇴 및 장로·권사 취임 예배를 드렸다.

는 권사들과 연합해 목회자를 보좌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작은 예수가 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임광선 장로는 "소통과 기쁨의 통로가 되는 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광고와 인사를 전한 김세환 담임목사는 "우리교회는 인제가 정말 많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은혜로

운 것은 오늘 임직자 대상에서 아쉽게 피택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지만, 기쁨으로 다음에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환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안규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W 교통신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 사우스베이 나눔장로교회 창립 4주년 감사예배 및 NKIA(NORTH KOREANS IN AMERICA)선교회 설립 예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3:1-2]

**<선교회 임원>**  
회장: 김홍철  
부회장: 현춘삼  
간사: 조승호, 김유영  
후원회장: 박병구 목사

**일 시:** 2014년 3월 30일 오후 5시  
**장 소:** 사우스베이 나눔 장로교회  
3521 LOMITA BL. #202B.TORRANCE CA 90505  
**담임목사:** 김영구 목사 310) 404-6219

**엔키아 콜라보레이션 단체설립 취지문**  
엔키아 콜라보레이션 (Nkia Collaboration) 은 나눔과 봉사에 앞장 서는 사회 봉사 단체입니다. 엔키아는 본 단체의 이름, North Koreans In America Collaboration 과 같이 북한 이민자들을 바탕으로 모두가 협력하여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콜라보레이션이란 여럿이 모여, 공동의 목적을 협력하여 이루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저희 엔키아의 공동목적은 '나눔' 입니다. 엔키아의 사역은 홀리스, 양로원, 그리고 빈민, 저소득층 시민에게 나눔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사역은 미국 커뮤니티에 북한 이민자들의 대한 관심과 의식 (awareness)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회 남가주노회 사우스베이 나눔장로교회**  
3521 LOMITA BL. #202B.TORRANCE CA90505 T.310) 404-6219

# “구원의 능력과 사랑으로 소문나길” 남가주새소망교회 1주년 맞아

### 김성민 목사 “성도들이 사랑을 간직하는 교회생활을 하도록 노력할 것”

로즈메드에 자리 잡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부흥해온 남가주새소망교회(김성민 목사)가 교회 창립 제1주년을 맞아 성도들과 이웃들 300여 명을 초청하여 감사예배 및 사랑의 잔치를 열었다. 감사예배는 16일(일) 오후 3시 30분 김성민 목사의 사회를 시작으로, 최진수 장로가 대표로 기도하고 박희민 목사(나성연락교회 원로)가 설교했다. 박 목사는 데살로니가전서 1:2-8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좋은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박 목사는 “오늘날은 정보가 넘치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당대에 좋은 소문으로 널리 퍼져있었다”며 “그 소문은 믿음

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과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사랑의 수고로 인해 성도들 간에 상부상조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좋은 소문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성도들과 이웃들이 함께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마련해 온 교회의 섬김이 아름답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광철 목사(조이헬로교회)와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가 축사와 격려사를, 강제철 목사(전 PCUSA 노회장)의 축도를 끝으로 남가주새소망교회 교회 창립 제1주년 기념예배순서를 모두 마쳤다. 2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교회의 이룬저런 모습을 동영상을 통해 보여주었고 찬양과 연극과 지명현 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가 창립 제1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사랑의 잔치를 열었다.

구현화 사모의 특별 찬양무대도 진행됐다.

김성민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성

도들이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간직하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회에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리종기 목사(광주 빛과사랑교회)를 초청해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손지훈 기자



다니엘 석 지휘자.

## 모차르트 레퀴엠 First Congregation Church of LA서 4월 4일 공연

다니엘 석 지휘자가 이번 4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레퀴엠을 지휘한다.

모차르트의 마지막 곡이자 미완성 곡은 300년이 지난 현재도 가장 영적이며 훌륭한 곡으로 극찬을 받는다. 이번 공연은 서부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غن 다섯 손가락안에 들며, 유럽풍 고딕 건물양식으로 유명한 First Congregation Church of Los Angeles에서 열린다. 좋은 어쿠스틱을 자랑하며 매

년 바흐페스티벌과 오르겐 연주자 열리는 곳으로 이번 레퀴엠 공연으로는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남가주 최고 수준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예술고등학교(LOCHSA)합창단55명과 프로페셔널 로스앤젤레스 오페라합창단25명이 합창하며, 솔리스트에는 엘레이 오페라 영 아티스트이며 도밍고, 오페라리아 콩쿨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러시아계 테너Vladimir Dmitruk과 시카고 리릭 오페라,

엘레이 오페라등에서 솔리스트로 데뷔한 흑인계 베이스, Patrick Blackwell이 출연한다. 메조 소프라노에는 역시 LA 오페라 영 아티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Cassandra Velasco 와 천재 소프라노 15살의 나이로 데뷔하는 유대인계 Golda Berkman 이 선을 보인다.

이번 공연의 감독과 지휘를 맡은 다니엘 석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음악회의 꿈이 실현되어 감동적이며, 특히 4월 4일은

Martin Luther King Jr. 이 죽은 날이기도 하여 함께 그의 죽음을 기리는 특별한 음악회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특별 출연으로 “I have a dream” 을 낭송하게 되며, “주기도문” 곡으로 장엄한 막을 내리게 된다. 티켓은 30달러이다.

문의 : www.dreamorchestra.org  
한국어 문의 323-636-2788  
1-800-838-8006  
박창민 기자

## 새언약초중고, 세인 고 군 올해 웨스트포인트에 합격

LA의 명문 기독 사립학교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새언약초중고등학교(New Covenant Academy. 이하 NCA)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NCA의 12학년예 재학생인 세인 고 군이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에 합격한 것이다.

한인타운 6가와 사토길에 위치한 새언약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미 2008년도에 다니엘 리, 2012년도에 주현우, 그리고 올해는 세인 고 군과

같은 학교에서 3명의 졸업생들이 웨스트 포인트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특별히 세인 고 군은 미국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웨스트 포인트에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LAPD카뎡프로그래를 18주 이수함과 동시에 2-3년간 올림픽 경찰서에서 봉사를 해왔다. 매일 운동과 봉사, 공부를 잘 병행하는 모범생으로 한인타운에 있는 우리 바디샵을 운영하는 고주선 씨와

고현숙 씨의 1남 2녀 중 막내이다.

웨스트 포인트는 뉴욕 주에 위치한 도시의 이름이지만 이곳에 미국 육군 의 최고의 장교들을 양성하는 미국 육군사관학교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하게 되면 미국 육군이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제공해 준다.



박창민 기자 새언약초중고등학교의 제이슨 송 교장(좌)과 세인 고 군.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유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LA 한남체인내 건강제품코너**

인터연이 직접 캔 **천종야생 산삼**

매실, 홍삼, 비타민, 녹용, 각종 한방 농축즙

**213)386-3585**  
www.uslahealth.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을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약도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 전세계 대다수 “종교가 도덕성에 영향 준다”고 믿어

## 퓨리서치 조사결과, 가난한 국가일수록, 교육 수준 낮을수록 비율 높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40개 국가 중 22개 국가에서 절대 다수가 도덕적이며, 선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 신을 믿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생각은 부유한 국가보다 가난한 국가에서 더 일반적이었으며, 미국은 예외였다.

퓨리서치의 ‘전세계 종교에 관한 태도 연구’에서, 신앙심을 도덕성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관점은 매우 우세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국가 역시 도덕성을 종교와 관련지었다.

그러나 2011년과 2013년 사이 40개 국가의 4천 80명을 조사한 결과, 유럽 내 적어도 반 이상의 국가가 비종교인도 도덕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대략 이집트, 요르단, 터키, 튀니지와 레바논에서는 70퍼센트 혹은 그 이상이 신앙심이 도덕성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스라엘에서만 신을 믿는 것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데 필수적이라고 답한 수가 절반을 넘지 못했다.

가나, 나이지리아, 우간다, 세네갈,

케냐, 남아프리카에서는 75퍼센트 이상이 이 관점을 유지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 브라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에서는 80퍼센트가 신을 믿는 것이 도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여겼다.

아시아 국가들 중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한국에서 다수가 이에 동의했다. 인도네시아, 가나에서는 99퍼센트가 도덕성이 종교와 관계된다고 답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최대의 무슬림 거주 국가인 반면, 가나는 기독교가 우세한 국

가다.

파키스탄에서는 98퍼센트가 신앙이 도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부유한 국가들일수록 신앙과 도덕성을 별개로 보나, 미국과 중국은 예외였다.

북미의 경우 53퍼센트가 신앙이 도덕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답했으나, 중국에서는 14퍼센트만 그렇다고 답했다.

캐나다에서는 31퍼센트만 종교가 도덕성에 있어 중요하다는 진술에 동

의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연구에서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됐다. 일반적으로 50세 이상, 대학을 다니지 않았을수록 도덕성을 종교와 관련짓는 경향이 높았다.

미국에서, 대학 학위가 없는 이들의 59퍼센트가 신앙이 도덕적이 되는데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대학을 졸업한 이들 가운데 이같이 답한 비율은 37퍼센트에 불과했다.

주디 한 기자

## 오바마 대통령 이민자 추방 완화 추진

오바마 대통령이 3월 14일(금) 이민자 권의 단체들과 1시간 30분 이상의 면담을 통해 추방으로 인해 이민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전달 받고, 국토안보국 장관에게 이민자 추방 행정을 전면 검토하여 성실히 일하는 이민자 추방을 완화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이민 가정의 위한 금식 전국 버스 투어(이하 버스 투어)’의 대표로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에 참석한 엘리세오 메디나 씨는 “아주 긍정적인 회담이었다. 나를 비롯한 모든 단체 대표들은 현 추방 집행으로 자녀들이 부모와 헤어지는 등의 가정 파탄 문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알렸다. 이를 듣고 오바마 대통령은 추방으로 인한 이민 가정의 고통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응답했고, 국토안보국 장관의 권한으로 ‘특별위원회(Committee)’를 창립하여 커뮤니티 단체들의 권고 사항을 수렴하고, 현 추방 집행을 재검토 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버스 투어에 참석하고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윤대중 사무국장은 “미교협이 백악관으로부터 초대는 받았지만 현 버스 투어 일정으로 참석하기 힘들어 엘리세오 메디나 씨를 대표로 참석시키기로 했다.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미국에는 1백 30만 명 이상의 아시안 아메리칸 서류미비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아시안 아메리칸 서류미비자 20여만 명 이상이 추방 되었다. 이로 인해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 서류미비 가족은 생이별, 추방으로 인한 공포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중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의 추방은 완화 될 것이고, 시민권자나 영주권 직계 가족을 두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은 추방에서 면제되고 임시 체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등 보다 더 좋은 집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된 ‘전국 버스 투어’는 현재까지 13개주 내 32개의 연방 하원 지역구를 방문하여 잘못된 이민 정책으로 인해 가족이 헤어져

살고 있는 이민 가정의 고통을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하루 금식(또는 수요일 한 끼 금식)과 연방의 원에게 전화하는 활동에 많은 한인들이 동참할 것을 알리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민족학교 사무국장 윤희주씨는 “하루 빨리 이민 개혁이 성사되어 가족들이 오랜 세월을 기다리지 않고 하루 속히 사랑하는 가족과 재결합 되고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부여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27일, ‘이민자 가족을 위한 금식 캠페인 전국 버스 투어’는 전국 100여 개 이상의 의원 선거구를 방문하는 2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한 달 동안 25명의 주요한 연방 의원 지역구 내에서 다양한 행사와 의원 방문이 진행 되었다. 2월 24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전국 버스 투어’가 출범되어 한 버스는 북쪽 지역으로, 또 다른 버스는 남쪽 지역을 투어하게 된다. 이 캠페인은 즉각적이고 인도적인 이민개혁을 위한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주요한 기자

## 아브디니 목사, 상황 악화 병원 치료까지 거부당해

이란계 미국인 사에드 아브디니(Saeed Abedini·사진) 목사가 처한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약 일주일 전, 그는 치료를 위해 라자이 샤르(Rajai Shahr) 교도소에서 사설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치료는 11일(이하 현지시각) 중단됐다. 진료를 거부당한 그는 현재 족쇄를 찬 상태이며, 병원 의사들은 그가 교도소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그의 가족들을 대변하고 있는 미국법과정의센터(American Center of Law and Justice)는 아브디니 목사와 관련해 최근 제네바 유엔 사무실에서 회동했다.

지난 1월 24일 자리프 이란 외교부 장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아브디니 목사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관대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 감형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계 미국인이자 개신교 목사인



아브디니 목사.

아브디니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란 법원에서 8년형을 언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의 석방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도 이란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대통령을 향해 “미국 시민인 그를 석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 3D 전신스캔 검사로 테바선교회 의료봉사활동

최신 3D 전신스캔 검사를 통해 70여 가지의 인체 내 건강 정보를 파악,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낸 후에 치료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테바선교회 후원 다나병원에서 이번엔 특별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번에 테바선교회(히브리어 원어로 “방주”란 뜻)는 이 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특별히 3D 스캔 검사 전문의인 한의사 다니엘b고를 초빙해 보다 정확한 스캔 검사를 하기로 했다. 우선 3D 전신스캔 검사는 방사능 위험이나 약물 부작용 없이 짧은 시간 내에 70여 가지의 건강정보를 스크린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최신 의료정보기기로 인체내 각 부위의 건강 유무를

미리 파악해 사전 예방 내지는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일부 양방 병원에서는 몇백불을 받고 하는 것이나, 테바선교회 후원병원인 다나병원에서는 일반인들에게 150불만된 것을 현재는 80불로 검사를 하고 있다. 이 봉사활동은 노인들을 비롯해서 보험이 없거나 체류신분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인들을 비롯해 해외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30불 정도의 저렴한 가격 또는 사정에 따라 무료로 검진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다나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1962년 헝가리의 Endre Mester가 최초로 개발한 저출력 레이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라파(Rapha) 402를

구입하여 치료하게 되었다. 이는 402개의 저출력 레이저가 환부에 직접 조사되어(쬐어져) 무릎관절의 통증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레이저 치료기이다. 레이저는 출력에 따라 고풍력(3,000~10,000mW)과 저출력(약 1~50mW)로 나뉘는데 고풍력 레이저는 오늘날 외과적인 수술때 조직을 절개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저출력 레이저는 상처치료를 효과가 큰 것으로 의학계에 보고 되었다. 이후 지난 40년간 600~900nm 영역에 있는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저출력 레이저 치료기들이 소개되었고 생체 조직 효과들로는 항염증, 면역활성화, 혈관확장, 혈행촉진, 진통 효과, 항부종, 상처치유 등이 있다. 가

장 많이 알려진 효과로는 관절염, 장상치유, 대상 포진 후 신경통, 아토피, 백반증, 탈모 및 피부관리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라파(Rapha) 402는 한국의 식약청(Korean FDA) 및 미국의 FDA에서 퇴행성 무릎관절염에 대해 뛰어난 치료효과로 치료용 의료기로 허가를 받은 저출력 레이저 치료기이다. 단순한 온열의료기나 미세전류 치료기들과 달리 더 전문적인

치료효과를 내기 때문에 Class IIIa로 허가가 난 제품이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라도 수시로 이 전신스캔 검사를 받게 되면 치명적인 병에 이르기 전에 초기에 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문의는 213-487-0691이나 213-985-0901으로 하며, 직접 내방하려면 621 S. Virgil Ave #250 LA 90005 로 오면 된다.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 213.487.0691

# 다음세대를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 We need pray for next generation

산타모니카지역과 UCLA 그리고 산타모니카대학등 대학가의 복음화를위해 4년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4주년 기념예배에 아주사대학원의 뉴만교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세대를위해 기도하는 사역자와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장 소: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담임:김경렬목사)**  
1520 Pearl Street, Santa Monica, CA 90405  
[www.smkc.us](http://www.smkc.us)

**일 시: 2014년 3월 23일 (오후 2시 30분)**  
교회주차장과 산타모니카 대학앞에 무료주차장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청강사: Dr. Daniel Newman**  
(Azusa Pacific University)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박사

### 역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능력이 나타난다



**진 유철 목사**  
나사순복음교회

군사 쿠데타로 약 30년 이상 독재 권력을 유지했던 무아마르 카다피로 유명한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근처 구레네 지방 출신의 한 사람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궁금하고 신기한 것들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리며 도시 전체가 시골벽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당연히 사람들 틈에 끼어서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머리는 가시 면류관에 찢려 피를 흘리고, 온 몸은 채찍에 맞아 살점이 다 찢어져 피투성이 된 한 사람이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며 끌려가고 있습니다.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기에는 거룩한 은혜가 흐르는 모습이었고, 누가 보아도 그의 눈과 몸짓 어디에도 반항과 불순종의 모습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죄와 무관해 보이면서도 권위가 있어 보이는 분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옆에서 인솔하던 로마 군병이 갑자기 자기를 지목하여 나오게 해서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했고 두려웠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웬지 항변하고 싶지도 않았습다. 무겁고 힘든 십자가였지만 대신 지고 끌고다의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양손과

양팔에 대못 박혀 높이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의 이름은 '예수'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들을 내쫓았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였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예수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성경은 그가 역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항변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막 15: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했는데 루포는 후일 로마 교회의 기

둥이 된 일꾼입니다. 롬 16: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했던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시몬의 아내입니다. 약 30년 전에 역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의 자녀와 아내가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행 왔다가 역지로 십자가에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 16:2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번 북미총회기간 중 선출직 부총회장이 된 다음날 새벽에 혼자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눅 23:26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지금 순복음 북미총회 산하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역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세상을 떠나는 분에게 하는 부탁



**현 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한 사람의 진가는 그분의 관 뚜껑을 닫을 때" 안다는 말을 나는 지난 주간에 다시 실감했다. 사랑하는 친척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날 뉴욕으로 날아가 입관에 배부터 하관에배까지 여러 번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죽음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설교하시는 분마다 가신 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80여년을 신앙생활을 잘 하였고 교회의 장로로서 헌신하시다가 고통과 눈물이 없는 하늘나라로 가셨으니 우리는 슬퍼하는 것보다는 환송예배로 드리자는 말씀에 유가족들은 많은 위로를 받았다. 나는 떠나신 분을 50여년 간 곁에서 지켜 보았기에 누구보다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장로님,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다른 세상 사람이 되었기에 할 말이 더 많아집니다. 가신 곳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가셨고 한 번 가시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기에 가족들은 더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산 사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아픔도 사그라지고 언젠가는 남아있는 식구들도 그곳으로 가서 다시 만날 수 있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장로님, 그곳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기로는 그곳에는 이 땅에서 겪었던 수 많은 것들이 없을 줄 압니다. 태풍이나 지진이 없고 병이 없으며 고통도 없는 곳일 것입니다. 대

신에 이곳에 없는 것들이 그곳에는 있을 텐데 사망에 우겨진 나무나 과실이 나 천만 가지 꽃들,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너무도 감미롭고 그 속에는 무수한 새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된 성도들이 되어 천군 천사들과 같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곳에 동참하셨다고 믿기에 축하합니다.

장로님, 그간 세상에서 힘들게 사셨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월남하신 부모님을 따라 서울에 와서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는 부모님을 도우며 그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Y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에 이민와서는 이런 저런 사업에 종사하셨습니다. 그런 고생이 있었기에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나

오고 사회에서 한몫을 담당하는 바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노년을 즐기지 못하신 것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지금의 세대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는 1일만에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실은 다시 일어나 살고 싶을 만큼 시대가 변했습니다.

장로님은 많은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즉 근면과 성실 그리고 절약 정신입니다. 가능한 버리지 않고 재생해서라도 돈쓰는 일을 줄이는 것이 몸에 배었던 이기에 남에게 아쉬운 말 안 하고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며 사셨습니다. 흔히 고생될 때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반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방종할 수도 있으나 그런 유혹을 잘 이겨내고 건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런 유산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험란한 삶속에서 얻어진 신앙의 결정체이기에 주위 사람들은 그 유산을 잘 받아 계승하겠습니다. 장로님,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열심히 찬양하며 행복하게 계시시오. 저희들도 뒤따라갈 것입니다(참고 눅23:43, 요14:1-4; 고전15:계21:& 22:)"

성경에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지혜자의 길이다'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다. 흠에서 왔다가 흠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나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며 살리라.

### 너-메시지, 나-메시지의 갈등



**김 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설교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설교하는 것이 제 직업이니 누구에게 어렵다고 하소연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화하다가 듣기 싫으면 거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설교하지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때론 설교하는 설교자도 힘든데,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저는 설교강단에 올라서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 하는 제 모습이 무섭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원래 성격은 그리 무섭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는 강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꽤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강단에서 제 본래의 성격과 좀 달라지는 이유가 있다면 신학교 때 설교학을 가르쳐주시는 교수님의 영향인 듯 싶습니다. 그 교수님은 설교할 때는 반드시 '너-메시지'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권위 때문에 '너는 들으라...'하며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교자가

스스로 힘이 있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너-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전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담학 교수님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왜 너는 그런 식으로 사냐?" 하지 말고, "너의 식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로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꾸어 대화하는 기술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나-메시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 아직도 밝이나? 제발 늦지마라", "방이 왜 이 모양이니, 청소 좀 해라",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쳤니, 그만해", "그만 놀고, 공부해라" ... 우리 자녀들과 할 수 있는 대화, 아니 대화가 아니라 정말로 '너-메시지'의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단 위에선 '너-메시지', 강단 아래에선 '나-메시지'로 그때마다 빨리 변모해야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설교자라, '나-메시지'로 다가가야 할 때 스위치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TV 앞에서 열정거리는 아들에게 "TV 앞에 있으니깐, 아빠가 TV보기가 힘들구나"하며 '나-메시지'로 전해야 하는데, 저는 "야, 비켜"라고 간단한 '너-메시지'로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솔직히 문제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강단 아래 있는 우리 모두는 설교식 '너-메시지'로 의사전달하는 데 익숙한 나머지 서로 정죄하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막상 권위 있는 설교를 전해야 하는 강단 위에선 점점 '나-메시지'의 유약한 설교가 무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담임목사 청빙

브라운스빌 한인 열린문 교회는 KAPC에 속한 장로교로서 미국 최남단 텍사스 지역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한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 하실수 있는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자격>**
- 1) 정규 신학 대학원을(M,Div) 졸업하고 KAPC 에 소속이거나 가입 가능한분
  - 2) 5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분
  - 3) 미국안에 거주하시며 영주권을 소유 하신분.

- <제출서류>**
- 1)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 2) 목사 안수 증명서
  - 3) 신앙고백서
  - 4) 최종 학력 증명서
  - 5) 추천서 2통, 설교CD, DVD 2회분(6개월 이내)

**<마감일>**  
2014년 3월31일

**<보내실곳>**  
The Korean open door church of Brownsville 한인 열린문 교회  
주소: 409 W, 2nd St, Brownsville Tx 78520

**<문의사항>**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가능하며 서류접수도 가능 합니다.  
ddhome124@hotmail.com

**한인 열린문 교회** The Korean open door church of Brownsville  
409 W, 2nd St, Brownsville Tx 78520

### 담임목사 청빙



SAN FRANCISCO 근처에 위치한 콩코드 침례교회는 담임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 A. 미 남침례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 미국신학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M,Div)
  - B. 침례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이나 가입 가능한 분 (타 교단에서 안 수 받은 목사인 경우 미남침례 신학대학원에서 6개월 정도 이수해야 하며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 C. 목회경력 10년 이상이신 분(담임목사 경력 3년 이상 포함)
  - D. 영어 한국어를 자유로이 사용하시는 분
  - E.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 <제출서류>**
- A. 본인 이력서(본인 및 가족사진 동봉)
  - B.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 C. 자기 소개서 : 본인 및 사모님(신앙간증, 사회경력, 사역경력, 목회비전)
  - D. 추천서 2부(동봉)
  - E. 최근 6개월내 설교 DVD 2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교회 website www.ckbch.org 에서 다운 받으십시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마감 : 2014년 6월 30일  
제출처 : P.O.Box 3073 SAN RAMON CA 94583 / Att : Hong Ki Hak  
문의 : 청빙 위원장 흥기학 안수집사(ckbch2014@yahoo.com)

**Concord Korean Baptist Church**  
5000 Hiller Lane, Martinez, CA 94553 / www.ckbch.org



#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기독교의료상조회에 가입하시면 **Religious Exemption(종교 벌금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오바마케어 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전국에 4개 뿐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오바마케어 크리스천 벌금면제 플랜)중 하나이며, 유일한 한인 단체입니다.

### ▶ 기독교의료상조회(CMM) 플랜

프로그램	골드플러스	골드	실버	브론즈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 소득, 신분, 나이와 상관없이 가격이 동일합니다.

### ▶ 기독교의료상조회(CMM) 플랜의 특징 및 장점

- 성경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플랜입니다.
- 한국(선교지)에서 사용한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모든 의사나 병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크리스천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과 신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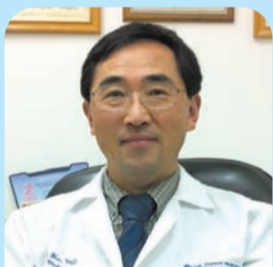
- ✓ **소득**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분
- ✓ **신분** 때문에 정부로부터 오바마케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
- ✓ **신앙**적인 이유로 오바마케어 가입을 원치 않는 분

각 지역 최고의 의료진이 함께합니다!



**차민영 내과**

213-480-7770  
520 S. Virgil Ave. #103,  
Los Angeles, CA 90020



**한경모 내과**

213-387-7800  
2681 W. Olympic Blvd. #221  
Los Angeles, CA 90006



**조지인 가정주치의**

213-380-8202  
500 S. Virgil Ave. #501  
Los Angeles, CA 90020



**강수웅 내과**

562-868-6256  
11832 Rosecrans Ave. #127  
Norwalk, CA 90650



**백성렬 내과**

909-839-0455  
20627 Golden Springs Dr. #2D  
Diamond Bar, CA 91789



**오문목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949-552-8217  
3500 Barranca Pkwy. #330  
Irvine, CA 92606



**조션 메디칼 그룹**

714-739-4325  
626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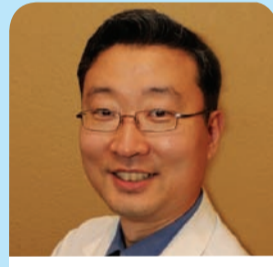
**이선우 류마티스 내과  
이호랑 위장내과**

323-938-0006  
4465 Wilshire Blvd. #303  
Los Angeles, CA 90010



**안우성 내과**

562-916-5020  
20145 S. Pioneer Blvd.  
Lakewood, CA 90715



**유원계 위장내과**

714-937-9400  
230 S. Main St.  
Orange, CA 92868

**차할리우드 장로병원은 한인 사회와 기독교의료상조회 회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할리우드 장로병원은**  
더 나은 시설에서  
더 나은 서비스로  
더 나은 경험을 드립니다.

**434베드 규모의 최초 한인 운영 종합병원!**

- 한국 CHA 병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시설 및 장비를 보유
- 분야별 최고 권위의 한인 전문의
- 아시안 환자 전문 병동 및 다수의 한인 간호사 상주

888-522-3455 (대표전화) 323-913-4900 (한국어 안내)

1300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27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www.christianmutual.org  
CHRISTIAN MUTUAL MED-AID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가입문의

# 213-986-8119

CMM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의료비분담사역) 단체입니다.

# 프로즌에 동성애 메시지? 오히려 가족주의 메시지 담겨

## 포커스온더패밀리의 폴 아세이, “‘달라도 괜찮다’는 메시지, 동성애적 암시보다 훨씬 앞서”

한 크리스천 영화평론가가 프로즌(Frozen)에 “동성애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한 목사의 주장에 반대하며, 디즈니의 유명한 영화들은 사실상 “신뢰할 만하며, 가족주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주장했다.

포커스온더패밀리의 웹진 플러그드인(Plugged In)에서 영화를 추천하는 폴 아세이(Paul Asay)는 이 히트작은 그가 한동안 스튜디오에서 본 영화 중 가장 좋은 영화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크리스천포스트에 “디즈니 만화를 생각하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나, 첫눈에 반한 사랑, 첫키스 같은 것을 떠올린다. 프로즌은 ‘로맨틱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가족 간에, 자매 간에도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며 상황이 악화돼도 우리는 마침내 그 사랑을 찾는다.”고 말했다. 아세이는 영화를 격찬했으나, 콜로라도에 기반을 둔 제너레이션 라디오에서 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케빈 스완슨(Kevin Swanson)은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밝히며 디즈니를 “미국 내 동성애 성향이 가장 강한 단체 중 하나”라 묘사하며 이 영화를 강



프로즌의 한 장면.

하게 비난했다.

스완슨은 “이것은 악이다. 단지 악일 뿐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이 귀여운 영화가 나의 5살짜리 아이에게 레즈비언이 되거나 동성애나 파렴치한 짓을 가하게 여기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한다.’ 나는 평범한 부모들이 프로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그들이 단순히 걸어들어가 ‘그래, 5살짜리 내 아이와 7살짜리 아이에게 좀 일찍 가르치자’라고 말할

지 궁금하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부분 의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 중 한 부분을 찾아 낼지도 모르나, 일어나서 영화관을 걸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완슨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를 보지 않은 그의 공동진행자 스티브 본(Steve Vaughn)은 사탄이 이 멋진 영화를 통해 가장 극악한 죄 중 하나를 매우적으로 보이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아세이는 “달라도 괜찮

다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발견한, 동성애자 평등이라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앞선다”고 말한다.

“이러한 메시지 덕분에 나는 다른 이들이 추구를 할 때,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엘사의 이야기가 동성애에 유리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 모든 아이들이 겪는 감정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Let it Go”를 고립으로 해석했다.

“이제 내가 뭘 해야할지 보여줄 시간이야. 한계를 시험하고 뚫고 지나가겠어. 이제 내겐 울고 그른 것도 규칙도 없어”라는 부분이 나온다. 나는 엘사가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도망쳐 나오며 부르는 노래이기에, 이 노래를 쓴 작사가는 약간의 불안감을 담으려 했다고 생각한다.”

아세이는 “그녀는 가족으로부터 달아나 언덕을 오른다. 많은 십대들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그들 자신을 고립한 채, 사람들을 차갑게 대하며 얼어붙게 한다. 이는 매

우 혼한 일이다. 이 여행 속의 엘사는 문자 그대로 사람들을 얼어 붙게 했다”고 말했다. 아세이는 엘사는 고립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대신 이전에 경시했던 사람들과 제도가 지닌 가치를 발견한다고 해석했다.

“엘사는 얼음궁전에서 나와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에게로 돌아가야 했다. 독립된 개인이 되려는 욕망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가정을 향한 책임 사이에 균형이 존재해야 한다.”

아세이는 이 영화 속에 크리스천에게 적절한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다르게 되기”라는 메시지는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다. 기독교는 결코 세속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 기독교는 매우 반체제적이다. 우리는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를 따름으로써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나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프로즌은 전세계적으로 10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오스카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Let it go”로 주제가상을 받았다. 주디 한 기자

# “모든 생명엔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 있어”

## 무뇌증 진단 받은 아이 낙태 대신 생명 선택한 여성,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자들 도와

태아 신경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면 대부분의 여성은 낙태를 선택한다. 그러나 테네시의 한 여성은 아이를 낳기로 선택했고, 출산 후 8시간 만에 아이를 하나님 품에 돌려 보내

야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선택할 용기를 주셨다며 자신과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여성들을 돕고 있다.

멤피스에 사는 헤더 워커는 “하나

님은 우리를 너무나 축복하신다. 우리 스스로는 해낼 수 없기에, 그 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수요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워커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그레이스 제임스”란 제목의 블로그에 아들이 태어나기 전, 진단받은 무뇌증으로 고심한 흔적을 기록했다.

워커는 크리스천포스트에 대부분의 여성이 자신의 아기가 출산 이후 조금 밖에 살지 못한다면 낙태를 선택한다고 말했다. 태아가 무뇌증을 앓고 있는 경우 95% 낙태를 선택한다. 그러나 워커의 신앙은 생명을 선택하도록 이끌었다. 그는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그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에게는 그를 창조한 이유가 있다”고 선포했다.

현재 무뇌증으로 고심하는 여성들을 돕고 있는 워커는 최근 버지니아의 가정들과 밀링턴의 자신의 교향근교에 사는 두 여성과의 대화를 언급했다. 그는 자신과 대화를 나눈, 많은 가정들이 크리스천이었다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나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워커는 자신이 이 병이 걸리지 않게 도울 수는 없지만, 자신과 같은 진단을 받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자신은 그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했다.

무뇌증은 두뇌 및 신경 발달과 관련된 심각한 병이다. 임신 26일째 되는 날, 두개골이 형성되어야 하는 목의 가장 윗부분에서 신경관 접합이 일어나지 않아, 뇌와 두개골의 주요 부분이 없는 상태다. 뇌졸기는 형성됐기에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능하며 다른 기초적인 기능은 정상이나, 이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 이 병은 치명적이며 치료 불가능하다.

워커는 무뇌증을 이와 유사하지만 치료가능한 태아기 질병인 척추비분증(spina bifida)에 대조하며 “그들은 나머지 두뇌를 외과적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병 역시 흔치 않은 질병으로, 5천명 중 1명 꼴로 발생한다.

2012년 2월 15일 그레이스의 출생과 조기 사망 후, 워커는 가족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어떤 이들

에겐 너무 적나라했을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페이스북이 그 사진을 삭제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그 사진을 올린 후 페이스북은 24시간 동안 그의 접근을 금지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페이스북은 태도를 바꿨다. 그는 크리스천포스트에 “그들은 그로부터 2주후 사과의 편지를 보냈다”며 그 후 그들과 아무 갈등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레이스를 잃는 비극과 페이스북의 무례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워커는 하나님께서 가족의 상실을 축복으로 바꾸셨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사건과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이야기는 주목을 받게 됐다. 그의 아들의 짧은 생애를 담은 영상은 2012년까지 조회수 약 2백만명을 기록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같은 사건을 사용하셨는지 놀랍다”고 말했다.

그레이스에게 결혼이 있음은 알기 전, 워커는 더이상 아이를 갖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세 번째 제왕절개로 그레이스를 낳을 예정이었기에 “그 당시 우리는 더이상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그는 여자 아이를 임신 중이다.

워커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지 않으셨다면, 제겐 아이가 없었을 거”라며 울먹였다. 그는 새 딸이 그레이스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 아이 덕분에 아들을 잃은 가족에게 기쁨이 다시 찾아 왔다고 전했다. 워커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가 건강해感激스럽다. 순산과 건강한 아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레이슨이 숨을 거둔 후 워커는 병원 문을 나서며 그레이슨을 포함해 아이 셋을 위한 열쇠고리를 샀다. 순간, 그는 알파벳 P가 새겨진 열쇠고리 한 개를 추가로 구입했다. 그의 배속에 있는 아이의 태명은 프리실리메이며, 5월에 태어날 예정이다.

그는 “그의 생명을 헛되지 않겠다”며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주디 한 기자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와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단, 컬러만 하시면 \$30.00

**매식스트레이트 \$100 up**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헤더 워커 씨의 가족 사진.









# 세계 최초의 캐거 미국 FDA에 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됨 일반 의약품 등록 번호(NDC No: 58912-2001)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Medical Product Name : Mirapharm-22**  
**FDA NDC Number : 58912-2001-1**

**Duns Number : 688502046**  
**Pin Number : cGfFh5Ec**

위 정보들은 미국 FDA로 부터 정식으로 부여받은 것들로  
제품 제조허가 번호, 제품명, 국제사업자 등록번호와 공장 설립허가 번호들입니다.

이로써 2013년 6월 12일 미라팜-22는 100% 천연물질이면서도 식품테스트에서 안전성이  
인증되어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인증서를 받았고, 그 이후 2013년 8월 1일에 미국 일반 의약품(NDC(OTC  
DRUG))으로 승인되어 OTC DRUG로서의 인증서를 받아 정식으로 미국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약품 제조허가번호와 공장 설립허가번호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국제사업자등록번호까지 획득해 합법적으로 제조와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 기적의 약 (Miracle Pharmacy) 미라팜-22 Mirapharm-22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예방 및 치료약,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약**



90캡슐 / 한달 분 / 한 병

**22세기형 최첨단 신약으로 탄생했습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 물질이면서 의약품으로 인증 받은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약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제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인증받은 첨단 의약품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복용후 5일 - 11/5/2013    복용후 25일 - 11/2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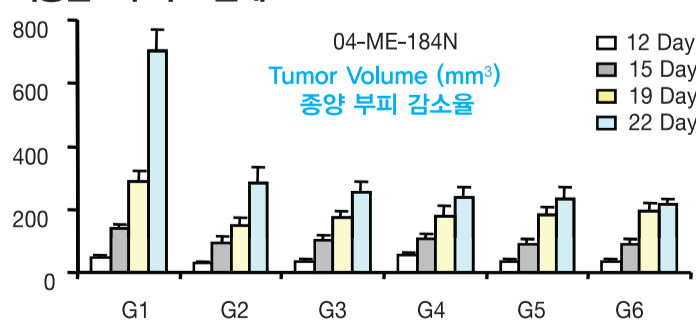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전    복용후 99일

###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최종일 - 투여 22일째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 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키모테라피에 사용하는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율을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 “우리가 겪은 슬픔과 핍박, 창조와 희망이 되게 해야”

## 이어령-이재철 양화진문화원 대담 ‘인생’ (1) 일제 시대

이어령 박사가 최초로 자신의 팔십 평생을 돌아보는 대장정에 나섰다. 이어령 박사는 이재철 목사와 함께 올해 ‘인생’을 주제로 매달 한 차례씩 양화진문화원 주관 목요강좌에서 대담을 나눌 예정이며, 13일 오후 그 첫 번째 문을 열었다.

이날 이 박사는 일제 강점기였던 1933년 태어나 일본인으로서 ‘국민학교’를 다녔던 심정부터, 해방과 6·25 전쟁을 겪고 만 22세의 나이로 문단에 파란을 일으킨 ‘우상의 파괴’를 신문에 연재하기까지 자신의 삶을 소개했다.

### 한 개인의 인생 통해, 시대와 역사 조망해 볼 것

이재철 목사는 이 같은 시도에 대하여, “모든 계급이 공유하는 한 시대의 역사적 정신으로 개별 사건이나 개인을 해석하는 ‘심성사(心性史·historie des mentalites)”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쉽게 말해 ‘미시사(微視史·microhistory)’를 통해 ‘거시사(巨視史·macrohistory)’를 읽어내려는 시도로, 이 박사는 “우리는 이 선생님의 개인 인생을 통해 시대와 역사를 함께 조망하면서 대담을 나누겠다”고 했다.

### 외로움 줄이기 위해 진짜 경험 목소리, 얼굴 1년간 쏟아놓겠다

대담에 앞서, 이어령 박사는 “절대 자서전을 쓰지 않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풀어놓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박사는 “여러분들 머릿속의 저에 대한 정보와 실제의 저 사이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큰 갭(gap)이 있는데, 이를 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외로움이자 슬픔”이라며 “이 간격을 조금이라도 좁혀려고, 나이도 많고 하니 이번 1년간 제가 겪은 것, 제 진짜 목소리, 진짜 얼굴을 다 쏟아놓고 가기 위해, 이런 엄청난 ‘인생 대담’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제가 보통 머리를 염색하고 다녀 젊은 줄 아셨다가 이번에 하얀 머리를 보고 놀라시듯, 모든 걸 털어놓고 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하면 거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제 외로움을 줄이는 길이 아닐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철 목사는 “선생님 말씀에 동의한다”며 “제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일수록 실제 저와는 다른 이재철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와 책을 통해 얻는 정보의 차이 때문 아닐까”라고 했다.

이 박사는 “에세이스트, 학자, 칼럼니스트, 소설가, 시인, 극작가에다 초대 문화부 장관, 88올림픽 행사 연출, 새천년준비위원장, 한일 월드컵 총괄기획 등 선생님을 수식하는 호칭이 참 많은데, 한평생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수식어를 갖고 계신 분은 없지 않나 생각된다”며 “이 모든 걸 통틀어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선생님은 크리에이터(creator), 창작자이셨다”고 말했다.

### 아버지·어머니에게 이성·감성 물려받아 지금의 ‘크리에이터’로

그는 “크리에이터를 사전에서 찾아 보면 ‘창조주’라고도 돼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50년간 무신론자였지만 크리에이터에게서 많은 능력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어령 박사는 이에 대해 “아버지는 창조적인 것, 남이 안 하는 것,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니면 못 참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문학 소녀셨다”라고 설명하면서 “아버지에게는 좌뇌(이성)를, 어머니로부터는 우뇌(감성)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두 분은 저보다 훨씬 똑똑한 좌뇌와 우뇌가 있었지만 저는 둘 다 있어서 평론도 하면서 창작도 하고, 어려운 논리적인 글을 쓰면서 여성적 감성의 글도 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노력 중 어느 것이 큰지는 몰라도, 절대 내 노력만으로 온 것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의 DNA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그 시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께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셨기에 중학교 때 월사금(月謝金)을 내지 못할 형편이 됐다”며 “물질적 문제보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성과 교양을 보고 자랐던 게 큰 복”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모태신앙이 중요한 것”이라며 “어머니 아버지가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와, 범죄자 등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문화적 환경이) 같을 순 없다”고도 했다.

이재철 목사는 “하지만 당시 많은 지나나 자본가들이 있었고 세상적으로 좋은 집안의 자제들도 꽤 있었지만, 그들이 모두 이어령 선생님 같이 되진 못했다”며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에게서 타고난 은덕이 분명 있지만, 그 위에 후천적 노력이 없었다면 시대를 선도하는 크리에이터로서의 선생님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야스쿠니 신사, 군국주의자



이어령 박사(위쪽)과 이재철 목사.

### 찬양하는 곳... 국립묘지 아냐

이후에는 일제 강점기 시절을 회상하며 오늘날의 일본과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령 박사가 설명한 당시는 잘 살든 못 살든 여성은 모두 ‘몸빼 바지’를 입어야 했고, 가지중립적인 용어 ‘소학교’는 황국 신민을 의미하는 ‘국민학교’로 바뀌었다. 이는 나치 독일을 본딴 것으로, 순수한 교육이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에 적응하게 하는 교육, ‘말썽한 사람 데려다 히틀러주의자 만드는 부품공장’ 같은 곳이었다. 사회와 국가의 이념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 이 박사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각기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에서 제 이름은 이어령 대신 ‘모리야마 토시오’가 돼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한국말을 쓰는 아이들은 표를 빼앗기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고, 동요 대신 ‘전황터에서 꽃처럼 죽자’는 내용의 군가만 일본어로 불러야 했다.

메이지 유신 때가 돼서야 ‘성씨(姓氏)’가 생긴 일본에 의해, 5백년, 1천년 내려온 한국인들의 성과 이름을 바꿔야 했다. 이 박사는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이 글을 쓰니 막강한 것”이라며 “노벨상을 탄 사람이 식민지와 독립, 전쟁을 모두 겪어봤을까”라고 했다. 그는 “불행한 시대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누이 따라다니면서 냉이를 따오니 채집 시대부터 농경 시대, 산업 시대, 정보화 시대를 거쳐 바

이오 시대까지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라고도 했다.

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령 박사는 “뒤편 놓고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가 미국 워싱턴의 알링턴 국립묘지라고 하면, 우리는 ‘야스쿠니 신사가 정말 국립묘지인가’라고 따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묘지가 아니라, 천황제의 ‘국교(國敎)’, 국가 신도의 상징 중 상징인 천황을 위해 ‘만세’를 외치고 죽은, 충성심 높은 집략군들의 위패를 모아놓은 곳일 뿐이라는 것.

이 박사는 “美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남북전쟁 당시) 남군과 북군이 모두 묻혀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가서 참배하지, 만약 남군 기독교인들만 모아놓았다면 (흑인인) 오바마 대통령이 그곳에 가겠느냐”며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국주의자를 찬양하는 곳이지, 영령들을 위로하는 장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식인도 야스쿠니 참배는 독일 메르켈 수상이 히틀러의 무덤에 가서 절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한국에서도 ‘왜 야스쿠니 신사가 알링턴 묘지인가? 일본의 국립묘지는 따로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일본이 거짓말로 호도하니 전 세계는 오히려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에게

국립묘지 현화도 못하게 하느냐고 비난했다”고 했다.

### ‘구호·정치적 반일’ 아닌, ‘휴머니즘·인권과 자유’ 내세워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40년 후 몸 버린 값 달라고 한다’고 전 세계에 알리면서 오히려 우리 할머니들을 욕하고 있는데, 이어령 박사는 “거꾸로 왜 40년 만인지를 전 세계에 되물어야 한다”고 했다. 1960년대 한일회담 당시 할머니들은 30-40대였는데 당한 그들이 ‘끌려가서 정조를 빼앗겼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 40년이 지나 부끄러운 것도 적어지고 남편·아버지까지 떠나고 나서야 외치기 시작했으며, 일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려 한다는 말이다.

“돈 몇 푼 받고 아흔 살 노인들이 그렇게 외치시겠는가, 인권을 인정해 달라라는 것일 뿐”이라며 “일본이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당했던 일들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청소년의 눈으로 전 세계에 나치의 잔학상을 폭로한 <안네의 일기> 같은 작품인, 자신이 쓴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를 소개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시절 잃어버린 자신에 대해 적은 글로, 일제시대를 정면에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아이가 겪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일장기 밑에서 최초의 교육을 받고, 일본 역사를 배우던 상처-을 담담하게 그려냈다고 한다.

이 박사는 “제 글이 일본에 다 번역됐지만, 반일(反日)을 다룬 게 아니라 그저 압당한 어린시절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도 이 작품만은 절대 출판이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작품들이 일어, 영어로, 불어로 번역되고 평가받아야 하고, 이것이 문화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령 박사는 “우리는 구호의 반일, 정치적 반일, 정략적 반일에 익숙해졌지만, 피가 푹푹 흐르는 휴머니즘에 입각해 독일인이, 미국인이, 일본인이 잃어도 함께 눈물을 흘려 줄 알폰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과 같은 작품이 필요하다”며 “다시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 되지 말자는 다짐으로, 인간의 자유를 상실하고 조국을 상실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퍼져야 우리의 슬픔은 창조가 되고 우리의 핍박은 찬란한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지, 이대로 가면 또다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이들에게 맡겨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대용 기자

#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김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김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 ###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뢰기기로 등록된 옷.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 교회들은 지금 '수평이동'이라는 '제로섬 게임' 중

## '새신자' 10명 중 4명이 교회 옮긴 이들... "돌파구 찾아야 할 때"

10년 전 서울에 교회를 개척한 K 목사. 노방전도를 마다하지 않았던 열정과 '평신도의 목회화'라는 참신함으로, 그는 금세 교회를 중형 규모로 성장시켰다. 입소문을 타니 목회도 한결 수월했다.

그러던 중 문제가 불거졌다. "이단이다", "K목사에게 윤리적 결함이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했다. K목사는 황당했다. 다행히 소문은 더 퍼지지 않았지만, 교회의 성장세는 한풀 꺾이고 말았다. K목사는 루머의 출처가 인근 교회들이 아닐까 의심했다. 교회들이 가깝게 모여 있어 서로 의심하는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정도였기 때문이다.

힘을 합쳐 '마귀'들과 싸워야 할 교회들이 소위 '교인 쟁탈전'을 벌이며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등, 그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국교회의 교세가 전반적으로 정체 내지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 성장이 소위 '수평이동'에 주로 의존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교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러면서도 끌여오기 위해, 교회들 사이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최현중 선임연구원의 논문 '한국 개신교의 새신자 구성과 수평이동에 관한 연구'(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14년 91권에 수록)에 따르면, 대형교회(교인수 1천명 이상)의 새신자 중 48.4%

가 수평이동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최 연구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242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중·대형교회(301~999명)는 45.8%, 중·소형교회(101~300명) 40.3%, 소형교회(~100명) 42.7%로, 대형교회의 수평이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수평이동 : 불교 : 가톨릭 : 무종교의 비율은 43:11:4:41(%) 정도로 나타났다. 즉, 새신자 10명이 오면 그 중 4명은 수평이동, 4명은 무종교인, 2명은 다른 종교인의 비율을 지닌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최 연구원은 "여기서 어느 정도 수평이동의 비율은 과소, 무종교의 경우는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연구원은 교회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는데, "현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잠시 교회 출석을 중단했을 경우, 이는 수평이동이 아닌 무종교에 포함되었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수평이동이란 흔히 새로이 교회에 등록한 신자 중에서 개종자, 즉 비종교인이나 타종교인이 개종을 통해 등록한 것이 아닌, 기존의 여타 개신교 교회 신자가 교회를 바꾸어 등록한 사례를 지칭한다. 이러한 개신교회의 수평이동은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온 상황이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회의 성장률이 둔화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후 두드러진 현

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수평이동 때문에 교회들이 불필요한 경쟁을 벌인다는 점이다. 서울 일원동 개포감리교회 안성욱 목사는 "과거 이 지역에 단독주택이 6~700세대 정도 있었는데, 교회 수는 무려 50여 개에 달할 정도로 포화상태였다"며 "그러다 보니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한 교회에서 주일예배 안내를 맡던 교인이 2주 후 그 이웃 교회에서 똑같이 안내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적도 있다. 이런 일들이 찾아지자 결국 지역 목회자들이 모여 수평이동한 신자는 서로 받지 말자고 합의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안 목사는 또 "교회들 입장에서 일종의 생존 문제다 보니 교인들의 이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작은 교회의 경우, 수평이동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기의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외형 등 비본질적인 것에 눈을 돌리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한다"고 했다.

서울 명동의 '교회다움' 민걸 목사도 "교인들의 수평이동은 교회들끼리 그야말로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교인수가 줄고 순수한 새신자를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평이동에 대한 대책이 그 만큼 없어진 것"이라며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미지 경쟁에 열을 올린다. 주보나 예배당 조형 등을 가지고도 경쟁할 정도다. 이처럼 교회 외적인 요



한국교회의 전반적 교세가 정체 내지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 성장이 소위 '수평이동'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이때문에 서로 인접한 교회들 사이에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상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

소들에 지나치게 힘을 쏟고 있고, 이는 교회들에게 있어 소모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목사는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제 정말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다. 지금처럼 소득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안식처 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수평이동이 아닌 순수한 새신자

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무언가 다른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목회자는 수평이동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주어진 양이 일정해, 한 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게임 -편집자 주)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득을 요구한 이 목회자는 "지금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기쁜 일만은 아닐 수 있다. 수평이동에 의한 제로섬 게임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며 "비록 우리 교회는 성장할지 몰라도 다른 교회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이 하나님나라 확장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는 과거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수평이동'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김 목사는 "수평이동을 그저 큰 교회가 작은 교회 교인들 다 빼앗아 간 걸로만 보면 교회 건강성 회복은 어렵다"며 "수평이동을 막으면 교회가 건강해질까. 그 반대라고 본다. 수평이동을 강제로 못하게 막으면 목회자들이 열심히 목회해서 좋은 교회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자기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회로 못 가기 때문이다. 교회들끼리 서로 선의의 경쟁이 있어야 발전도 있는 것인데, 그걸 강제로 못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기자

# 일치·화합으로 하나님께 영광...교회 위기는 성결성 회복으로



2014 성결인 대회에 참석자들이 비전선포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모처럼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한 2014 성결인 대회 '리바이벌 2.0'이 '성결의 복음으로 이 땅에 회복을'이라는 주제로 16일 신길성결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조일래, 이하 기성)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나세웅, 이하 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감독 한기동, 이하 나성)가 함께하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 주관 첫 모임이었다. 이 자리에는 400여 개 교회와 5000여 명

의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성결교단의 일치와 화합 그리고 성결성 회복을 다짐했다. 하나님을 위한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고, 기도는 더욱 간절했으며, 함께하는 찬양 소리는 아름다웠다.

한성연은 창립 목적에 대해 "침체에 들어선 한국교회의 분열과 아픔의 역사 앞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성결인의 일치와 화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며,

성결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 성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교회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여 복음 확장의 계기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연은 이번 성결인 대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연차 행사로 발전시켜, 한성연의 발전의 모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성결인의 비전 선언문에도 연합과 일치의 정신이 분명하게 반영됐다. 교단을 대표한 평신도들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성결교회가 연합해 최선을 다하고, 사중복음에 기초한 성결한 삶을 살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한성연이라는 이름 하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연합사역을 통해 일치를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고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세대 지도자들과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특별히 연합을 상징하는 순서들이 의미를 더했다. 모형

으로 제작된 법규와 각 교단 기가 임장하면서 시작된 이번 행사는 각 교단 대표자들의 안수기도, 7개의 교회 가 모여 준비한 연합성가대의 찬양 등이 이어졌다.

예성 총회장인 나세웅 목사(한성연 대표회장, 신림동중앙교회)와 나성 감독인 한기동 목사(한성연 공동회장, 기성 총회장인 조일래 목사(한성연 공동회장, 수정교회)가 나란히 말씀선포했다.

나세웅 목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의 기치 아래 우리는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 성결인의 대회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

라고 밝히고, "민족 분단의 아픔과 각 분야와 세대간에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진 현실 속에서 예성과 기성, 그리고 나성이 한 마음 되어 아름다운 역사의 획을 긋는 귀한 일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애쓰는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한기동 목사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 영향력을 선전하기 위해 모인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땅의 교회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겸허히 듣고 전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고 했다.

박대웅 · 김경준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국: 박희민, 정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이인규 편집국장: 토마스 탕  
고문변호사: 정찬용  
지사망: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213) 739-0403 / E-mail: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Christianity Daily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Gold Finger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후 배달**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라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 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975 S.Vermont Ave.#102, Los Angeles, CA 90006 T.213.386.5858 / C.213.663.9556

<서승원 박사 특별 기고>

# 로고스와 레마(2)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 IV. 로고스와 레마 간에 의미나 뉘앙스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앞에서 지적한대로 어떤 목사님들이 “레마”와 “로고스”를 구별해서 “레마”는 특별히 “능력 있는 말씀”의 뜻으로 사용된다고 말하는데 반하여 “레마” 뿐만 아니라 “로고스” 역시도 “능력 있는 말씀”을 뜻하는 경우에 쓰이고 있다. “로고스”가 “능력 있는 말씀”의 뜻으로 쓰인 경우들과 “레마”도 “능력 있는 말씀”의 뜻으로 쓰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1. 로고스가 능력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  
마8:16; 13:23; 24:35; 눅4:36; 요4:50; 5:24; 15:3; 17:19; 행6:7; 12:24; 13:26,49; 20:32; 롬3:4; 9:9,28; 빌2:16; 6:17; 딤후2:5; 딤후2:9; 약1:18,21; 히2:2; 4:12; 벧전3:5; 벧후3:5,7; 요일1:1.

2. 레마가 능력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  
마4:4; 눅2:29; 요6:63,68; 15:7; 행5:20; 11:15; 엡5:26; 히1:3; 11:3; 벧전1:25.

이상의 예들로 미루어 “로고스”는 일반적인 말씀의 뜻으로 사용된 반면 “레마”가 능력 있는 말씀의 뜻으로 사용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레마”와 마찬가지로 “로고스”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마”와 “로고스” 간에 어떤 미묘한 의미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레마”와 “로고스”가 같은 곳에서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 이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고스”와 “레마”가 같은 의미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3. 구별 없이 함께 쓰이는 곳  
마12:36; 요12:47-8; 15:3-7; 17:6-8; 행10:36-37,44; 13:44-49; 히12:19.

마12:36에서 “레마”와 “로고스”가 무익한 “말”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요12:47-48과 15:3-7에서는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으로 사용되었고, 요17:6-8과 행10:36-37; 13:44-49; 히12:19에서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행10:44에서는 “레마”와 “로고스”가 베드로가 한 말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로고스”가 말씀이 아닌 특별한 뜻으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고스”와 “레마”가 둘 다 동일하게 “말” 또는 “말씀”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 둘 사이에 어떤 의미나 뉘앙스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Kittel(Kittel)이 편집한 신약신학사전에는 “레마”가 “명확한 진술”(statement)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나(축약판 505면),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레마” 보다 오히려 “로고스”가 “명확한 진술”의 뜻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예가 롬14:12에 나온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 해당하는 히랍어원문을 직역하자면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진술하게 될 것이다”이다. 여기서 “진술하다”에 해당하는 히랍어는 “로곤 두나이”(λόγον δουναι)이다. 그런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로곤 두나이”(λόγον δουναι)는 “어떤 견해에 대한 정당함을 입증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로고스”의 이러한 용법은 비단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만 해당하는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영어의 논리 그리고 논리학(logic)이라는 말은 히랍어의 로기케(λογική)에서 나왔는데, 이 로기케는 “로고스”에서 나온 사실과 학문의 명칭을 나타내는 데도 “로고스”가 사용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신학을 뜻하는 영어의 “theology”는 라틴어 “theologia”에서 나왔는데, 라틴어의 “theologia”는 히랍어 “qeologiva”에서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logia(λογία)는 logos(λόγος)에서 나왔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로고스”는 “학문적인 연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로고스” 대신에 “레마”가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리

고 한편의 글이나 저술도 “로고스”라고 하지 “레마”라고는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13:22에서 자기가 쓴 글을 “로고스 파라클레세오스”(λόγος της παρακλήσεως)이라고 부르는 데, 그 뜻은 “격려의 글”이다. 이때에 “레마”를 사용하지 않고 “로고스”를 사용한 것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 누가가 행1:1에서 자기가 먼저 저술한 책 즉 누가복음을 “처음 글” 즉 “프로토스 로고스”(πρωτος λόγος)라 한 것도 이와 유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요즈음 학자들 중에서도 로마서를 “권면하는 글”이라는 의미로 “로고스 프로트렙티코스”라고 부르는 학자가 있는데, 이것도 고대의 관습을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고대에서 “로고스 프로트렙티코스”(λόγος προτρεπτικός)는 하나의 문학적 장르(genre)였다. 이것은 수신자로 하여금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권면하고 독려하는 글이다. 이것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플라톤의 영향 하에서 철학을 관장하는 책에 붙인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예를 찾자면 “권농가”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고대에서 “로고스”는 단순히 “말”이나 “말씀”이라는 뜻 외에도 여러 가지 뜻으로 그리고 자주 사용되었으나 “레마”는 “말” 또는 “말씀” 이외의 다른 뜻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흔하게 쓰이는 말도 아니었다. “레마”가 복수로 쓰이면 그것은 “표현” 또는 “어구”(phrase)를 의미하나 이것도 “말”이라는 그 기본적인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고대히랍어 사전인

Liddel-Scott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사전은 각 면이 두 개의 난(column)으로 되어 있는데, “로고스”에 대해서는 두 면 반이 할애되어 있지만 “레마”에 대해서는 불과 몇 줄만이 할당되어 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레마”가 상당히 자주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성경에서도 “로고스”가 “레마”보다 훨씬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히랍어로 된 구약성경 즉 70인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사용되는 빈도수와는 상관없이 “로고스”와 “레마”가 “말”을 뜻할 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런 차이 없이 둘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로고스”와 “레마”를 구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아니다.

### V. 구약의 경우

이러한 사실은 비단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70인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로고스”와 “레마”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지칭하는데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와 “필리아”가 아무런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창세기에서는 “로고스”가 세 번 등장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은 창4:23인데 여기서 “로고스”는 라멕의 “말”을 뜻한다. 그 다음은 29:13에서는 “로고스”가 야곱이 부모 곁을 떠나 어떻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된 “경위”를 뜻하고 마지막인 34:18에서는 “로고스”가 야곱과 그 아들들의 말을 뜻한다. 그러나 “로고스”가 인간의 말을 뜻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예를 들면 출4:28에서는 “로고스”는 여호와와 “말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로고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출5:9에서는 “쓸데없는 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레마”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은 창15:1인데 여기서 “레마”는 여호와와 “말씀”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창24장에서는 “레마”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오는데 (9,28, 30,33,52,66), 이 모든 경우에 “레마”는 사람의 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말을 뜻한다.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사야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1:10; 2:3; 28:14; 66:5에 “여호와와 말씀”이란 말이 나오는데, 1:10; 2:3; 28:14에서는 “로고스”가 사용된 반면에 66:5에서는 “레마”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자주 인용되는 사55:11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험통하리라”에서 “말”에 “레마”가 사용되었지만, 그에 앞서 사45:23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겼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에서는 “말”에 “로고스”가 사용되었다. 그런가 하면 사28:11에서는 “레마”와 “로고스”가 둘 다 인봉된 책의 “말씀”의 뜻으로, 사37:4-7에서 “레마”와 “로고스”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도 “로고스”와 “레마”가 사람의 말을 지칭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 VI. 나가는 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에서 “로고스”와는 달리 “레마”가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어느 목사님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으로 구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능력 있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으로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맨 처음 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런 비판 없이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교계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잘못된 주장이 여러 사람에게 의해서 되풀이 되어도 이것을 시정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교계가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끝>

## 가장 비싼 보험

San Jose Mercury News에 의하면 실리콘 벨리의 한 무명의 억만장자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험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가 산 것은 2억 100만불 짜리 보험인데 그것은 1990년도에 어느 “연예산업인물”이 구입하여 기네스

북에 기재된 최고 보험에 두 배도 더 되는 액수의 보험이었습니다. 그 억만장자는 자기의 상속자들이 45%에 달하는 상속세를 피하도록 하려고 그 보험을 샀다고 합니다. 후식 억만장자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

나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억만장자가 구입한 보험은 이 땅

에 사는 동안만 효과가 있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 “영원한 보험”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박광철 목사  
최이철로교회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 북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 화해와 평화의 좁은 길

홍정길 | 문예출판사

‘온건한 보수와 진보’가 모여 ‘통일만큼은 교회가 통일된 마음으로 하자’는 당위로 시작된 남북나눔운동 20주년을 맞아 주요 인사 6인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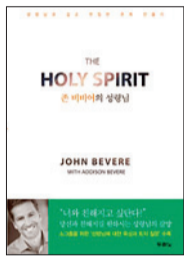


네 명의 제자가 쓴 사복음서가 그리스도의 행적을 다양하게 알려주듯, 다양한 20년의 기록이 담겨 있다.

#### 존 비비어의 성령님

존 비비어 | 두란노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는 책에서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돕고 있다. 말씀의 여정을 통해 성령님의 성품과 갈망,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성령과 함께 일하며 소통하는 법을 소개하고, 마지막 두 장에서는 성령의 언어인 ‘방언’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원제 ‘The Holy Spirit’.



#### 겸손한 정통 신앙

조슈아 해리스 | 생명의말씀사

교회에는 바른 진리를 고수하는 성도들이 있다. 또 진리에 대한 분별보다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겸손한 성도들이 있다. 저자는 이 둘의 관계에 대해 다루면서, 바른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 교리를 바른 태도로 옹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 설교자를 위한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경재 | CLC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기독교의 고전이지만,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이해하고 어렵다. 저자는 이를 설교문으로 풀어 그의 목상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여, 기독교의 사상적 깊이가 상실되고 있는 오늘날 강단에서 신학적 깊이와 사상적 해안을 갖춘 설교자들의 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돕는다.



## REVIEW

### 그리스도는 성도의 사김 속에서 체험되는 분이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는 반(反) 나치운동에 가담하여 독재정치와 싸웠다.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기 불과 며칠 전 게슈타포에 의해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진 청년신학자이다.

브레슬라우의 명문가에서 출생한 그는 튀빙겐과 베를린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독일이 히틀러의 손에 있지만 않았어도, 이 ‘천재 청년 신학도’는 현대 신학의 조류를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의 사상이 현대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준 바 있으나, 그의 사상 못지 않게 그의 ‘행동’은 많은 지성인의 반향을 낳고 있다.

본회퍼는 “그리스도인의 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라고 한다.

한 번 잠깐 만나는 것이든, 날마다 자주 만나는 사김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귀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리고 그의 안에서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택함을 받았고, 시간 안에서 용납되고,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본회퍼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사김을 위한 유일한 터를 놓아 주셨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귀는 생활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한 몸이 되도록 묶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귀는 생활로 들어갈 때에 요구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받는 자로서 들어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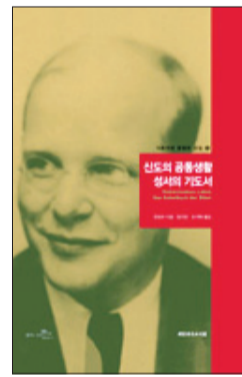
본회퍼는 ‘홀로 있음’과 ‘사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김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고, 또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

이 사김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김 속에서만 우리는 어떻게 바로 홀로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배우고, 홀로 있음으로써만 우리는 어떻게 사김 안에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는 침묵이란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다만 고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침묵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 중 말씀을 묵상하며 침묵을 지킬, 정해놓은 시간도 필요하다. 특히 말씀 듣기 전후, 그리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루를 보내고 사김을 갖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그는 아무 꾸밈 없이 진심으로 “나는 죄인의 과수”라고 고백한다. 또 “섬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듣는 섬김, 서로 돕는 섬김, 형제의 짐을 지는 섬김이다”라고 했다.

본회퍼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



디트리히 본회퍼 | 대한기독교서회 1158쪽 | 16,000원

아무도 죄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앞에서 뿐 아니라 사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덮어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거나 한 것처럼 자신에게도 형제에게도 꾸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에서로 죄를 고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형제에게 죄를 고백하러 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경건한 사김은 아무도 죄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앞에서 뿐 아니라 사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덮어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거나 한 것처럼 자신에게도 형제에게도 꾸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 뚫린다. 형제 앞에 죄인으로 선다는 것은 건디기 어려운 치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옛 사람은 형제의 눈앞에서 죽는다. 처절하게도 한없이 부끄러운 죽음을 죽는 것이다. “우리가 형제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마음과 몸에 깊은 아픔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깊은 아픔에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영원한 축복으로 체험합니다.”

그는 1945년 4월 8일 약식 군법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다음날 아침 히틀러 저항운동을 이끌던 카나리스 장군을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의 나이 39세였다.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디트리히 본회퍼, 그들 형제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1906년 2월 4일 브레슬라우에서 출생. 1945년 4월 9일 플로렌부르크에서 죽다.” / 송광택 목사(송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교회학서문화연구원 대표)

<p><b>세종 송보감</b></p> <p>“충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p>	<p><b>뇌보감 골드</b></p> <p>“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p>	<p><b>高麗발효삼</b></p> <p>“항암 효과, 기력향상, 원기회복” “고려대학교, 액츠 생명연구 개발”</p>	<p><b>세종 요로청보감</b></p> <p>“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p>	<p><b>퍼스트레이디</b></p> <p>“여성건강, 생리 활성” “불가리아 장미오일 캡슐”</p>
--	--	--	--	--

Biotech SEJONGBIOTECH, INC 문의 : 213-383-8899 www.sejongbiotech.us

판매처: 코리아온 세종바이오텍 엘에이지사 (월서와 버길길 복음방송2층, 213-383-8899) / 가주건강종합백화점 (한남체인건너편 천중산상영, 213-388-1234) / 비타민 아울렛 (아사마켓 건너편, 213-382-1252) / 발론갤러리아약국(마켓내)213-388-4100 / 글렌데일 한국약국 (글렌데일 한국마켓 내, 818-637-7708) / 세리투스 웰빙건강8선물 (세리투스 시온마켓내, 562-403-0282) / 부에나팍 네이처영양센터 (부에나팍 한남체인내, 714-690-0120) / 샌디에고 굿모닝약국 (레이시온로드 교차로 스티브스커피빌딩내, 858-268-1660)

**초스피드 다이어트**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배배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마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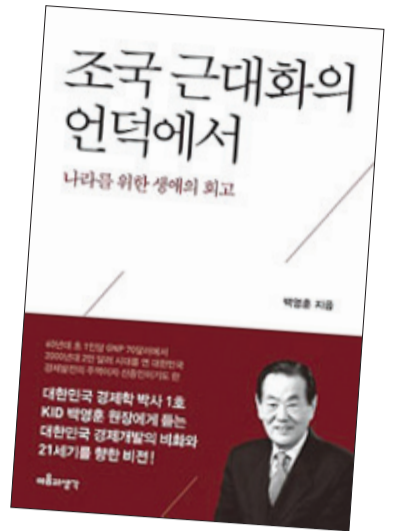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경제개발 50년사’의 숨은 주역, 백영훈 박사를 만나다

# “어머님의 기도가 한 사람을,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조국 근대화의 언덕에서 | 백영훈 | 마음과 생각 | 276쪽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백영훈 박사(84)는 눈부신 성장기를 기록한 '한국경제 50년사'의, 숨은 주역 중 한 사람이다. 독일 유학으로 '대한민국 1호 경제학 박사'가 되어 돌아온 그는 1960년대 광부와 간호사들의 독일행에 공헌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독 방문을 수행하면서 상업 차관을 들여와 경부고속도로와 울산·구미·창원 공업단지 건설 등 경제개발의 기초를 닦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동아일보 창간기념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백영훈 박사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 진정한 주역은 따로 있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이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한 사람을 살렸고, 한 나라를 키웠습니다. 제 고향은 전북 김제입니다. 만경평야 갯벌에서 농사짓던 가난한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아홉 자녀를 키우시면서,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백 박사의 어머니는 새벽마다 교회당엘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당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자식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재목으로 키워 달라고, 써 달라고요. 젊은 시절 새벽기도회를 따라갔을 때,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평생 잊혀질 않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덕 위에 있는 교회로 올라가서서 30-40분간을 그렇게 혼자 기도하셨지요.”

그는 그 눈물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그 혼란하던 시절, 1950년 서울 고려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시골 출신으로 희망을 안고 어렵사리 상경했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북한 공산당의 침략이었다. “다리가 폭파돼 고향으로 피난을 갈 수도 없었지요. 며칠 있으니 김일성대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결국 수건 하나 든 채로 인민의 용군으로 끌려갔지요. 낙동강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을까. 4학년 선배의 지시 아래, 한밤중에 함께 탈출에 성공한다. 산으로 가서 인민군복을 모두 벗은 다음, 밤마다 산길을 걸어 무려 15일 만에 고향에 무사히 도착했다. 숨어서 지내던 어느 날, 서울이 수복됐다는 소문에 학교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학도병으로 백마고지에 나가 맹렬한 기세의 중공군을 막아야 했다. 미군은 영

어 가능자를 찾았고, 현지 임관으로 통역장교가 돼 석 달간 생사를 무릅쓴 임무를 수행한다. “휴전 후에 병무청에 신고를 하러 갔더니, 군번이 없다며 다시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웃음). 1930년생이 대한민국 징병제1기인데, 고민이 많았지요.”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인도 다음으로 낮은 국가였다. 유엔 한국재건위원회 인도 대표 메논(Menon)은, 우리나라를 둘러본 후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겠는가”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국토는 폐허가 됐고, 먹고 살 길

아시아 지역에 쿠데타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경제원조와 함께 잉여 농산물 지원까지 모두 중단시킨다.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같은 분단국가인 서독에 승부수를 던지기로 한다. 그러나 독일 대사관 직원들 7명 중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수송문 끝에 백 박사가 호출된다. 그는 당시 궤침에 걸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이었다고 한다.

“독일에서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경제 장관을 만나주지도 않고, 간신히 차관 약속을 받았

국 노스웨스트 비행편마저 취소돼, 1주일 먼저 가서 독일 대통령에게 비행기를 보내 달라고 부탁해야 할 만큼 국력이 약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에 서 13일간 머물며 ‘라인강의 기적’을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탄광촌에서 파독 광부들을 만나 그 유명한 ‘눈물의 연설’을 했다. 독일 대통령은 “라인강의 기적은 아우토반과 폭스바겐에서 시작됐다”며 고속도로 건설을 권했다. 박 대통령은 아우토반을 달리다 모든



백영훈 박사는 책에서 “개발연대는 전복과 복수라는 파괴적 역사의식이 아니라, 계승과 지양의 변증법적 역사의식 속에서 국가 선진화, 민족통일이라는 새로운 시대사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은 막막했다. 유엔 보고서에 눈물 흘린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해외 유학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기로 결심한다. 이때 패전국에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서독을 배우라는 교수의 가르침에 따라, 백 박사는 국비 장학생에 지원해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홀로 합격, 독일로 떠난다.

“그 땐 비행장이 서울 여의도에 있었어요. 독일로 떠난다니 그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지요. 독일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떠나는 자식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지요. 지금도 63빌딩 근처를 한 달에 한 번씩 지나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선 제 눈물을 닦아 주시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지요.”

백 박사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떠올리며 독일에서 ‘목숨 걸고’ 공부했다. 그렇게 남들은 5년도 넘게 걸리는 경제학 박사 학위를, 3년 만인 1958년 11월 ‘하나님 은혜로’ 따낸다. 돌아갈 차비도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다 대통령이 보내준 여비로 간신히 귀국, 그는 28세에 은사가 있던 중앙대 부교수가 됐다.

이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지만 담보가 없어 지급보증서를 떼주는 외국 은행도 없었지요. 저는 매일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기를 20여일, 함께 공부하던 노동부 슈미트 과장이 찾아왔다. 그가 내놓은 복안은 광부 5천명을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작업 조건이 열악하더군요. 지열이 40도여서 일본, 파키스탄, 터키 등 외국 근로자들이 왔다가 모두 도망갔다고 합니다. 함께 있던 독일 대사가 걱정 말라고, 5만명도 가능하다고 장담했습니다.” 실제로 전국 신문에 광고를 냈더니, 4만7천명이 몰렸다. 고교 졸업자만 신청을 받았는데, 대학생들이 이력서를 속여 지원했다. 슈미트 과장이 간호사도 2천여명을 요청했는데, 2만7천명이 응시했다. 1진 123명을 뽑아 출발한 것이 1963년 12월 21일, 그래서 지난 해가 ‘파독(派獨) 광부 50주년’이었다.

이후 대학으로 돌아간 백 박사를,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불렀다. 서독 국민 방문이 성사됐는데, 통역관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 때가 대한민국 반만 년 역사에서 국가원수의 첫 해외 국민 방문이었습다.” 하지만 빌리러던 미

수행원을 멈추게 한 뒤, 차에서 내려 허허벌판 도로 한가운데에서 아스팔트에 입을 맞췄다.

박 대통령은 귀국하면 경제수석으로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인사차 들른 독일 은사는 “너희 나라에는 장관이 아니라 교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었고, 그곳이 바로 지금도 원장으로 있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다. 경부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했고, 공업단지를 구상했으며, 서울 강남 한복판에 무역센터를 세워 국제회의장과 컨벤션센터, 호텔과 백화점, 시티터미널 등 5개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담보로 했던 파독 광부·간호사들의 월급이 보전되도록, 세일즈 단장으로 나서 전세계 백화점을 돌아다녔다.

“담보를 풀어주려고 목숨 걸고 수출했더니 되더라구요.” 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달러를 처음 달성했다. ‘수출의 날’로 지정됐고, 지금은 ‘수출의 날’이라고 한다. 1977년 1인당 GNP가 1천달러를 돌파했다. 세계는 우리를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다.

“저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박 대통령님 모시고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적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저는 인민의용군에서, 백마고지에서, 독일에서 죽을 고비를 세 차례나 넘었습니다. 지금은 1인당 GNP 3만달러를 이야기하지만, 경제개발을 시작하던 1960년대에는 70달러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았던 제가 조국 건설의 역군이 됐듯,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 백영훈 박사는 자신의 50여년 인생을 담은 책 《조국 근대화의 언덕에서(마음과생각)》를 탈고했다. 백 박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책을 쓰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책이 아니라, 눈물의 책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썼어요.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지요.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50년의 역사, 가난을 극복한 조국의 역사를 놓고 다음 세대가 다시 역사 앞에 서야 합니다. 지구촌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은혜로 전 세계에 750만명 흩어져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책이 격려가 되고 역사 앞에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여기에 힘을 실어야지요.”

이대웅 기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인내**

- ▶ 증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23)737-378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HAND MEN AVAILABLE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I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치매는 **치매탕**으로

특징

1. 인지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아세틸콜린 농도 증가
2. 굳어지는 혈액을 풀어주는 PLASMIN 활성화된다
3. 치매의 원인이 되는 B - AMLYOID를 제거
4. 뇌세포를 파괴하는 산화스트레스 제거
5. 뇌의 혈류를 촉진시켜 영양과 산소 공급 증가
6.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1. 치매환자에게서 뛰어난 인지능력 개선효과와 기억력이 검증되었다
2. 뇌세포를 파괴하는 B-AMLYOID를 정상수준으로 유지되었다
3. ANTI-PLASMIN의 작용으로 혈액응고를 풀어주어 정상 수치 유지됨을 보았다
4. 염증반응의 조절기능이 향상되었다
5. 혈관 확장 능력의 회복과 혈액 흐름의 증가가 현저하게 개선됨을 보았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2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Grand Opening Sale"**

• 그랜드 오픈 기간에만 특별가 제공 •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15,000 스퀘어 피트 뉴쇼룸 오픈  
브로커 환영

ashin@winhyundaicarson.com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 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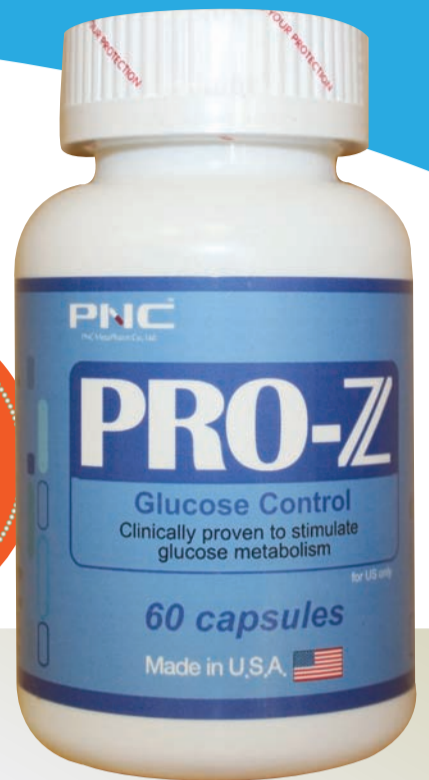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 30만병 판매 기념 특별이벤트

##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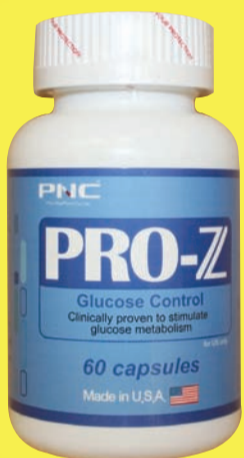
**신제품**  
소비자가 \$76  
\* 한국에서는 \$120에 판매중



### !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개선을 PRO-Z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 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재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1병

\$76



2병

\$120

### 프로지 효능사례

#### 김 OO 장로(당뇨 10년) :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3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붓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 졌습니다.

#### 최 OO 목사(당뇨 30년) :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6달간 복용하니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 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 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 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이 OO 집사(전립선) :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 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정 OO 집사 :

몸이 늘 피곤하고 무겁고 입안에 입병이 자주 났었는데, 프로지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알씩 한달 정도 먹고 나니 피곤하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덜해졌습니다. 4개월 정도 먹고 있는 지금은 입병도 거의 안 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제 몸에 부족했던 아연이 보충이 되니 만성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을 하며 주위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뇨전문 치료 한의원인 실로암 한의원에서도 PRO-Z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Tel . 213.427.0036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미국 FDA에 치료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업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 복용시 췌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확신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 프로지 셀러 모집중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 셀러 모집  
상담환영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213.434.1170



복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www.phhyundai.com

푸엔테힐즈 현대

**SUPER STORE**

2013년 모델

**Clearance Sale**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00대가 넘는  
2013년식  
신형 차량 보유



**\$199** +TAX

**2013 SONATA HYBRID LIMITED**

Model# G0432F4S

MSRP: \$31,540. 36 months lease \$2,999 due at lease signing \$1,0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rebate, \$500 boost up cash.



**2013 GENESIS SEDAN (TECHNOLOGY PKG) \$279** +TAX

Stock# DU249043, DU247931, DU242510

MSRP: \$44,575. 36 months lease \$7,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rebate, \$500 boost up cash.



**2013 SANTA FE SPORT 2.0T (LEATHER & PREMIUM EQUIPMENT PACKAG) \$299** +TAX

Stock# 83072

MSRP: \$31,725. 36 months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k miles/year. \$1000 retail bonus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500 Boost up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Lease it for **\$139** Per Month +TAX

**NEW 2013 VELOSTER (STYLE PKG + TECHNOLOGY PKG)**

Model# F0303F45

36 Months Close End Lease, 12k Miles Per Year \$2999 Due At Lease Signing,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500 Boost Up Cash &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Lease it for **\$159** +TAX

**NEW 2013 GENESIS COUPE GRAND TOURING A/T**

Model# C0352R65

MSRP: \$33,190 close end lease for 36 months. 20¢ in excess of 12k mile/year. \$7,999 due at signing,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No security deposit. On approved credit



Lease it for **\$399** +TAX

**NEW 2013 EQUUS SIGNATURE DEMO**

Vin # 070328, Vin # 069919, Vin # 064363

MSRP \$60,170 close end lease for 24months, \$8,999 Due at lease signing, \$1,0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500 boost us cash, 12,000 miles per year, plus 1st month's payment,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or save up to \$13,000 net cost: 47170/ 2 at this price, msrp: \$60,170, <\$10,600> ph discount, <\$2,400> all incentives, \$13,000 total net savings



스티브 강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USED CAR

EH870276A 2010 ACURATL \$21,500	34945 2011 EQUUS \$37,900	108167A 2011 INFINITI G37 \$20,900	EU078343A 2008 MERCEDES BENZ E350 \$22,900	EU859790A 2007 MERCEDES BENZ G55 AMG \$78,888
---------------------------------------	---------------------------------	--	---	--

푸엔테힐즈현대에서 함께 일할 세일즈맨을 모집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PH** 푸엔테힐즈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